



PASCAL International Observatory

브리핑 페이지 15

지속가능한 학습도시에서의 기업가정신 구축

Peter Kearns (Pascal International Observatory 상임이사)

요약

오늘날 학습 도시를 구축하는 데 있어서 ‘기업가 정신(entrepreneurship)’이 중요한 요소로 인식되고 있다. 이 개념은 최근 발표된 UNESCO의 ‘Cork 학습 도시 행동지침(Cork Call to Action Learning Cities)’과 PASCAL의 EcCoWell 2 프로젝트의 주요 개념 중 하나로 사용되었다. 우리는 급속도로 변화하는 기술로부터 현재 노동 시장의 트렌드를 이해할 수 있다.

전통적으로 기업가 정신은 비즈니스 개발의 맥락에서 언급되어 왔지만, 유럽위원회(European Commission)는 이 개념이 비단 기업활동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삶의 다양한 국면에서 자신의 아이디어를 실현시켜 나갈 수 있는 개인적인 능력 중 하나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개인의 능력으로서 기업가 정신은 창의성(creativity), 혁신성(innovation), 위험을 감수함(risk-taking), 자기경영(management), 기회의 탐색(opportunity seeking), 그리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추구하는 것(striving for sustainable development)으로 구성된다(Yu & Lee 2017). 이 확장된 개념은 관련 정책과 활동을 발전시키는 데 있어서 학습 도시들로 하여금 지역, 개인, 국제사회, 그리고 산업의 개발에 기업가 정신을 불어넣기를 촉구한다.

기업가 정신은 스킬(skills), 행동(behaviours), 그리고 자질(attributes)이 서로 어우러질 때 발달된다. 지역사회에서 이러한 속성들을 발달시키기 위해서는 전략적인 관점, 지속적인 지원과 발전을 보장해 줄 수 있는 파트너십이 요구된다. 성공적인 학습 도시들에서는 다양한 분야의 파트너들이 이상적인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있다. 학교들이 문제 해결 능력과 같은 기초적이고 일반적인 스킬을 공급하여 기업가 정신의 기초를 놓아준다면, 사회적 기업들은 청년실업률이 높은 이 사회에서 젊은이들의 사업적 스킬과 자질을 발달시켜주는 역할을 한다.

이 글에서 사용된 확장된 개념으로서 기업가 정신은 지식(knowledge), 스킬(skills), 자질(attributes), 그리고 가치(values)에 있어서 비슷한 접근을 취하고 있는 ‘OECD 학습 프레임워크 2030(OECD Learning Framework 2030)’에서도 같은 맥락으로 사용되고 있다. OECD에서 제안한 학습 프레임워크는 급변하는 이 시대가 요구하는 우리 사회와 미래를 변화시키는 능력을 포함한다(OECD 2018b).

미래의 ‘지속 가능한 학습 도시(sustainable learning city)’는 혁신과 기업가 정신이 당연시되고 유지되는 ‘기업가적인 사회(entrepreneurial society)’일 것이다. 학습 도시들은 이러한 사회를 건설하기 위해 신중하게 계획되어야 한다.

기업가 정신의 기초는 어떻게 구축되는가?

UNESCO의 ‘Cork 학습 도시 행동지침(Cork Call to Action Learning Cities)’과 PASCAL의 EcCoWell 2 프로젝트는 ‘기업가 정신(entrepreneurship)’을 그들의 과제 중 하나로 채택하였다. 현재 우리가 당면한 문제는 어떻게 하면 기업가 역량을 학습 도시 내에서 가장 효과적으로 발달시킬 수 있는가이다. 이를 위해 어떤 경우에는 상당한 정도의

문화적 변화를 동반해야 하기도 한다. 기업가 정신은 스킬, 자질, 그리고 행동의 총합이며, 이 요소들은 학교를 포함한 여러 교육 훈련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개발되어야 한다. 이러한 개발이 지역사회에서 이루어질 수 있기 위해서는 상당한 파트너십이 요구된다.

이 글은 유럽위원회가 채택하고 있는 확장된 개념으로서 기업가 정신의 정의를 따릅니다. 이 맥락에서 기업가 정신은 기업활동의 범위를 넘어서 삶의 모든 방면을 포괄하며, '혁신과 기업가 정신이 정상적이며 상시적으로 지속되는' 기업가적인 사회를 만들어 나가는 것을 중심 과제로 삼고 있다 (Drucker 1985:236).

최근 연구 동향

James, Preece, 그리고 Valdes-Cotera 의 2017 년판 책 <기업가적 학습 도시 지역 (Entrepreneurial Learning City Regions)> 은 학습 도시에서의 기업가 정신에 관한 관심을 촉발하였는데, 거기에서 저자들은 기업가 정신의 개념을 분석함과 동시에 그 실천으로서의 교육 및 기타 분야에서의 우수 사례를 검토하였다. 이 글의 상당한 부분이 위의 책에 의존하였다.

그 중 한 챕터로서 Yu 와 Lee 는 (2017: 139) 기업가 정신에 대한 유럽위원회의 견해를 차용하고 있다. 이들은 기업활동 뿐 아니라 개인이 삶의 여러 방면에서 자신의 아이디어를 재구성할 수 있는 능력을 향상시킨다는 점에서 기업가 정신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여기에서 개인의 능력으로서 기업가 정신은 창의성(creativity), 혁신성(innovation), 위험감수(risk-taking), 경영(management), 기회탐색 (opportunity seeking), 그리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구하는 것(striving for sustainable development) 등으로 구성된다 (Yu & Lee 2017). 이는 기업가 정신이 보편적인 지역사회에서 마음학습문화(mindful learning culture)를 구축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모든 교육 및 훈련 분야에서의 과제라고 할 수 있다.

기업가 정신의 세가지 기둥

Haskins 는 Gibb 의 논의에 기초하여 '기업가 정신의 세가지 기둥 (three pillars of entrepreneurship)'을 제시하였다.

- 기업가적 스킬 (entrepreneurial skills) – 문제해결 능력, 사회적 스킬, 창의적 사고, 협상 스킬
- 기업가적 행동 (entrepreneurial behaviours) – 기회 탐색, 창의적인 문제해결, 주도성, 기민한 판단
- 기업가적 자질 (entrepreneurial attributes) – 자율성, 성취지향성, 행동지향성, 끈기

(Haskins 2017: 96)

어떤 특성들은 이런 범주경계를 넘나들수도 있는데, 이런 점에서 볼 때 어떤 자질들이 예컨대 핵심역량(key competences) 등의 기본스킬로 재분류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있을 수 있다 (Kearns, 2001).

글로벌 역량 (Global competency)

기업가들은 그 어느때보다 글로벌해지고 복잡한 환경에서 경쟁해야 한다. 글로벌 역량이 21 세기 기업가 정신의 기초로서 기업가 정신의 세 기둥에 포함되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OECD 는 글로벌 역량에 대해 지속적으로 중시해왔고, 최근 PISA 평가 항목으로도 포함되었다. OECD 가 주관하는 ‘국제 학업 성취도 평가 (Programme for the International Student Assessment, PISA)’ 조사 체계에서 ‘글로벌 역량 부문’은 지식과 가치, 태도와 스킬이 복합된 개념으로서 이 역량을 이해하는 데에 도움을 준다.

‘OECD 학습 프레임워크 2030 (OECD Learning Framework 2030)’

이 글에서 채택하고 있는 기업가 정신에 대한 확장된 접근은 지식 (knowledge), 스킬(skills), 자질(attributes), 그리고 가치(values)에 대한 ‘OECD 학습 프레임워크 2030 (OECD Learning Framework 2030)’ 의 확장된 접근과도 일맥상통한다. OECD 에서 제안한 학습 프레임워크 안에는 급변하는 시대에 요구되는 관점전환능력(transformative competencies)이 포함될 수 있다.(OECD 2018b).

기업가 정신의 기초 (Foundations for entrepreneurship)

학교는 기업가적 스킬의 기초를 닦고, 향후 일터에서 기업가적 자질 및 행동을 고양시키는 능력을 개발할 책임이 있다. 학교는 상상력, 호기심이 이끄는 학습, 창의성, 수업에서의 다양한 사고, 그리고 일터에서의 '학습을 위한 학습'과 같은 자질들을 발전시켜야 한다.

OECD 주관의 ‘국제 학업 성취도 평가 (Programme for the International Student Assessment, PISA)’를 분석한 여러 출판물들이 있는데, 예컨대 통해 높은 성과를 내고 있는 학교들에 대한 보고서 및 각 나라가 채택하는 전략들을 분석한 연구물들을 활용할 수 있다. 학업성적이 뛰어난 학생들을 분석한 연구물이 특히 유용하며, 특히 싱가포르 사례는 주목할 만 하다.

2015 년 PISA 조사에서 싱가포르가 보여준 뛰어난 수행성과는 1959 년부터 이어져온 지속적인 발전과정을 통해 얻어진 것이며, ‘21 세기 역량 및 학생성취를 위한 싱가포르 프레임워크 (Singapore Framework for 21st Century Competences and Student Outcomes)’는 학교로 하여금 기업가적 스킬, 행동, 그리고 자질을 개발하도록 하는 좋은 사례를 보여주고 있다 (OECD 2015).

이 프레임워크 (framework)는 다음과 같은 발전고리들 (developmental rings)로 구성되어 있다.

- 바깥 고리: 자신감 있는 사람, 자기 주도적 학습자, 사려심있는 시민, 활동적인 기여자
- 안쪽 고리 1: 소통자, 협력 또는 정보 스킬, 시민 문해, 글로벌 역량, 다문화 역량, 비판적 창의적 사고
- 안쪽 고리 2: 자기인식, 사회인식, 책임감 있는 결정, 관계적 관리

이 프레임워크는 학교 내 기업가 정신의 기초를 구축하는 데에 탁월하다고 할 수 있다. 때문에 싱가포르가 지속 가능한 발전의 성공적 모델로서 높은 행복지수 뿐 아니라 경제적 성과를 보여주고 있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

기업가 정신의 발전 (Building on the foundations)

직업 교육훈련기관(vocational education and training, VET), 대학, 그리고 학습공동체(learning community)들은 학교가 놓은 기초 위에 나름의 기업가 정신을 발전시켜왔다.

직업교육훈련 분야에서, 핵심 역량과 같은 기본스킬들은 바로 기업가적 스킬들을 성장시킬 수 있는 기반이 된다. OECD의 '국제 성인 역량 조사 (Programme for the International Assessment of Adult Competences, PIAAC)'는 ICT 환경에서의 문제해결능력에 대한 국가별 성과에 대해 설명해준다. Benneworth 와 Osborne (2016)의 'Institutional Approaches to Supporting University Entrepreneurship Education'도 매우 유용하다. Judith James (2018)가 PASCAL 홈페이지에 게재할 글은 기업가 정신을 지원하는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한 대학과 기업의 책임을 다룰 예정이다.

OECD (2017 a and b)의 기업가정신에 대한 두 보고서 또한 이 문제들을 포괄적으로 다루고 있고, 'The Missing Entrepreneurs'라는 논문은 소외계층과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포용적 기업가정신에 관한 정책을 다룬다. 이 역시 학습도시와 연관된 관점이라고 할 수 있다. 프린스턴 리뷰(Princeton Review) (2018)는 기업가 정신 교육을 제공하는 대학의 순위를 발표하였다. 이 순위에서 유일하게 포함된 외국 대학인 멕시코 Tec de Monterrey 대학은 아메리카대륙의 PASCAL Center 로 활동하고 있다.

혁신적 학습도시 및 공동체의 경험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협력적 공동체 프로젝트가 창의적인 아이디어 및 소셜네트워크킹이나 사회적 판단력과 같은 기업가적 스킬을 성공적으로 발전시켜 왔는지 확인할 수 있다. 대만의 타이페이(Taipei) 시와 아일랜드의 코르크 (Cork) 시에서 시도된 2016년 PASCAL 글래스고 국제 학술대회에서 발표된 '학습이웃 프로젝트 (Learning Neighbourhood projects)'는 이런 좋은 사례라고 할 수 있다. 국가간 협력적 국제프로젝트들은 이런 사례를 공유하는 좋은 기회이다.

청년의 사회적 기업 경험 (Social enterprise experience for youth)

학습 도시에서 활동하는 사회적 기업들은 청년들이 기업가 정신을 훈련할 수 있는 효과적인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세계적으로 청년 실업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사회적 기업들은 청년들로 하여금 자신의 사업을 기획하고 경영할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그들이 사업가 또는 기업가적 스킬을 얻을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다. 청년들을 위한 사회적

기업들의 활동 가운데 단순한 활동에 참여함으로써 청년들은 그들이 꼭 필요로 하는 노하우(know-how)를 쉽게 배울 수 있다. 우리는 2007 년 호주 멜버른 (Melbourne)의 브림뱅크 (Brimbank) 시 학습 공동체의 사례에서 구체적인 예시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이 학습 공동체는 커피 가판대를 운영하면서 지역 노인들에게 잔디 깎기, 정원 관리, 간단한 집 수리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브림뱅크 시에 위치한 Sunshine Youth Center 는 이 학습공동체가 성장할 수 있는 허브가 되어 주었다. Mugione 와 Penaluna (2017: 116-118)는 청년 기업가 정신을 고양하는 정책 및 관련 활동을 구성하는 여섯 가지 기둥들을 제시한다.

정책 및 실천에 대한 시사점 (Implications for policy and practice)

위의 사례들은 학습 도시 정책 및 활동에 대한 다음과 같은 시사점들을 제시한다:

- 모든 학습 도시들과 학습 공동체들은 기업가 정신을 고양시키기 위한 계획과 활동들을 개발해야 한다.
- 이를 위해서는 학교를 포함한 여러 교육 분야들의 참여가 필수적이며, 이를 통해 기업가적 스킬의 기초를 다질 수 있다.
- 비즈니스계와 시민사회는 하나의 파트너십 아래 이러한 교육 분야의 활동들을 지원해야 한다.
- 기업가 정신은 비즈니스의 발전 뿐 아니라 개인들로 하여금 삶의 도전을 받아들이고 기업가 마인드로 그에 대응해 나가도록 해야 한다.
- 청년을 위한 사회적 기업들은 청년들에게 기업가적 또는 비즈니스적 스킬과 경험을 제공하는 중심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

PASCAL 은 학습 도시들을 지원하기 위한 활동과 연구를 계속 해 나갈 것이다. 특히 Ec-CoWell 2 프로젝트를 통해 학습 도시들과 학습 공동체들이 성공적으로 기업가적 정신을 발전시킬 수 있는 원리들을 제시해 나갈 것이다. PASCAL 은 UNESCO 평생학습 국제기구(UNESCO Institute for Lifelong Learning)와 협력하여 향후 학교에 기업가정신의 기반을 구축하고 그에 대한 아이디어와 경험을 지속적으로 공유해 나갈 것이다.

참고문헌

Benneworth, P, & Osborne, M, (2016) *Institutional approaches to supporting entrepreneurship*. Accessed 7 January 2018 from <http://eprints.gla.ac.uk/117835>.

Drucker, P. F. (1985) *Innovation and Entrepreneurship*. New York: Harper and Row.

Haskins, G, (2017) Entrepreneurial learning: knowledge, skills, behaviours and attitudes: An introduction. In James, J., Preece, J. & Valdes-Cotera, R. *Entrepreneurial Learning City Regions*. Cham: Springer. pp 95-99.

James, J, Preece, J, & Valdes-Cotera, R (eds), (2017)) *Entrepreneurial Learning City Regions*. Cham: Springer.

James, J (2018) A learning system entrepreneurship ecosystem. To be posted on <https://pascalobservatory.org>.

Kearns, P, (2001) *Generic skills for the new economy* Adelaide: National Centre for Vocational Education Research. Accessed on 7 January 2018 from <https://www.ncver.edu.au/data/generic-skills-for-new-economy-review-602.pdf>

Mugione, F, & Penaluna, A, (2017) 'Developing and evaluating enhanced innovative thinking skills in learners'. In James, J., Preece, J. & Valdes-Cotera, R. *Entrepreneurial Learning City Regions*. Cham: Springer, pp101-120.

OECD (2015) *High performers: Singapore*. Accessed on 5 January 2018 from <http://www.oecd.org/pisa-2015-Singapore.pdf>

OECD (2013) *Programme for the International Assessment of Adult Competences*. Paris: OECD

OECD (2017a) *Entrepreneurship at a glance*. Paris: OECD.

OECD (2017b) *The missing entrepreneurs: Policies for inclusive entrepreneurship*. Paris: OECD

OECD (2018a) *Preparing our youth for an inclusive and sustainable world: The OECD PISA global competence framework*. Accessed on 19 February 2018 from <http://www.oecd.org/pisa/Handbook-PISA-2018-Global-competence>.

OECD (2018b) *The future of education and skills: Education 2030*. Paris: OECD

The Princeton Review (2018). *Top 25 in entrepreneurship: Ugrad*. Accessed on 13 January 2018 from https://www.princetonreview.com/college-rankings?rankings_top-25-entrepreneurship-ugrad

Yu Wai-Min & Lee Chi-Kim (2017). Sustaining entrepreneurial education in Hong Kong as a learning city through partnership building. In James, J., Preece, J. & Valdes-Cotera, R. *Entrepreneurial Learning City Regions*. Cham: Springer, pp137-154

PASCAL International Observatory 는 핵심솔루션을 진흥하고 증명할 수 있다. 우리 학습도시 네트워크 전문가들은 아래 내용들을 수행할 수 있다:

- 대학의 총장단 리더들, 시의 시장단 및 고위 행정가, 그리고 지역 및 국가의 정책가들에게 관련 아이디어를 홍보하며,
- 발전/봉사관련분야에 접근하여 보고서 혹은 웹사이트를 만들며,
- 교육이나 스킬요구를 파악하고 청년 기업가정신을 고취하는데 도움이 될만한 기업 리더들에게 사업을 알리고 함께 참여하도록 하며,
- 연구재단이나 국가연구위원회 등에 대해 관련 연구의 중요성을 명시화할 수 있다.

웹사이트를 통해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http://pascalobservatory.org>